

답없는 文, 사라진 安...이종걸·주승용 최고 당무 거부

주류·비주류 극한 대치...파국 치닫는 새정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제갈 길 행보'가 이어지면서 주류와 비주류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벌써 안 전 대표와 비주류 상당수 의원들이 이달 내에 탈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류의 수장인 문 대표는 7일 안 전 공동대표가 재차 요구한 '혁신 전당대회' 개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이틀째 묵묵부답 행보를 이어갔다. 문 대표는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도 대답을 드리기가 난감하다"면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단합하고 협력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 방안(문안박 연대)이 적합하지 않다면 또 다른 방안이라도 그런 협력체제가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전대 수용은 힘들지만 '문안박' 임시지도체 제처럼 큰 분열과 출혈 없이 관계회복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나아가 이날 최고위에서는 안 전 대표가 요구한 '10대 혁신안'을 당헌·당규로 확정하기 위해 9일 당무위, 14일 중앙위 개최를 추진하는 등 안 전 대표의 탈당 명분을 차단하기 위한 작업에도 나섰다.

이와 함께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오영식 의원의 공석을 메우기 위한 규정 개정에서 등 현행 제도로 내년 총선 공천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이 같은 주류의 일방 행보 속에 안 전 대표는 이날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서울을 떠나 장고(長考)를 위한 집거에 들어갔다. 그는 일주일 가량 지방 여러 곳에 다니며 그동안의 생각을 정리하고 향후 계획을 세우는 등 정국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대표는 이전까지 각계와 활발히 접촉하며 의견을 교환했던 것과 달리 집거 중 외부 인사와 만남은 갖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일주일 가량 지방에 다니면서 전국 각지에 있는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 연대 의사를 타진

안철수, 접촉 끊고 지방 칩거

문재인, 묵묵부답 '마이웨이'

지도부, 공천 준비 작업 속도

비주류 이달내 탈당설 '솔솔'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여전하다. 당 안팎에서는 손학규 전 상임고문,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천정배 의원의 접촉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안 전 대표가 칩거에 들어가자 비주류들도 당무 거부 카드 등을 꺼내는데 이어 당직사퇴 카드도 만지작거리면서 주류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나섰다.

비주류인 이종걸 원내대표와 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며 당무를 거부했다. 지난 4일 주 최고위원이 시작한 최고위 불참에 이 원내대표까지 가세한 것이다.

주 최고위원은 "문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안 전 대표를 붙잡아야 한다"며 "타협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에 나와 "지금 현상대로 가면 당도 죽고 문재인도 죽는 것"이라며 "당도 살리고 자신도 살리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문 대표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당의 중진과 중고지대에 속한 인사들은 안 전 대표의 탈당이 총선에 치명적인 아권 분열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또다시 중재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중진들은 문·안을 포함한 조기 선거대책위를 만들어 선대위에 실권을 주는 방안, 문·안이 2선 후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새로운 중재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비주류인 이종걸 원내대표와 주승용 최고위원은 문 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및 대표직 사퇴 거부에 반발, 당무거부에 돌입한 채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야권 대통합·혁신 전대 필요”

새정치 비주류 의원 15명 '구당 모임' 결성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지역구 국회의원 15명이 7일 야권 대통합을 위한 '구당(敎黨)모임'을 결성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김동철, 김영록, 이윤서, 장병완, 박해자, 황주홍 의원 등 6명이 참여했으며 김영환, 강창일, 신학용, 노웅래, 문병호, 유성엽, 정성호, 최원식 의원 등 9명이 합류했다.

이들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현 지도부 체제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한다"며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당 분열을 막고 구당을 위해 살신성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야권 대통합과 혁신을 실천하는 전

당대회가 필요하다"며 "이런 뜻을 함께 하는 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문호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구당모임은 모임 결성을 비롯해 이틀 5가지 사항에 합의하고 오는 8일 오전 첫 모임을 개최하기로 했다.

모임 간사는 노웅래 의원이 맡기로 했다. 노 의원은 "현 지도부로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것은 현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사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구당모임 차원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탈당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든지 대통합과 당의 혁신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힘 받는 천정배 신당

새정치 탈당 조배속 전의원 참여...千 "안철수 의원 등 참여 환영"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갈등이 당 밖 신당 추진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신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 추과 꾸준히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다, 3선을 한 전북의 조배속 전 의원이 7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 '천정배 신당'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의원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안 전 대표가 야권의 현안에 대해 천 의원은 물론 그 주변 인사들과도 소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문 대표가 '문안박 연대'를 제안한 날에도 '천정배 신당'에 관여했던 한 전직 의원과 회동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조 전 의원과 김귀동 변호사, 김중식 군산신문사 대표, 정도진 전 정읍시의회 의장 등 새정치연합 전폭 당원 3000여명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득권 지키기와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새정연은 책임과 냉정이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조 전 의원은 4:29 재·보선 당시 무소속 정동영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새정연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천 의원은 창당추진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제1야당은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확실한 결단을 내려서 신당 흐름에 함께 해준다면 그것을 통해 한국정치, 특히 아권 주도세력을 전면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안철수 전 대표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최근 제1야당의 모습을 키워드로 보면 무기력·무책임·파쟁·음모·조롱·모욕 등이다"라며 "이 지극지극한 상황을 끝내는 길은 신당 창당을 통해 아권 주도세력을 교체하는 것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또 "이러바 친노(친노무현) 문재인 대표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아권을 이끌어온 여러 유력한 분들이 모두 다 책임지고 물러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문 대표 등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개혁적 국민정당은 오는 9일 오후 열리는 창당추진위 회의에서 신당의 기정 당명을 결정하기로 했다. 13일 오후에는 서울 동구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www.gstec.or.kr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속에 각종 단체 행사와 편의시설 이용 및 다양한 국비지원 사업 지원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각종 행사, 세미나 등 다양한 시설과 레스토랑, 헬스, 사우나 등 각종 편의시설 이용 가능

- ✓ 대규모 국제회의실, 대연회장, 객실 등 호텔식 규모로 운용 (광주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 ✓ 30여년의 역사와 호남최고의 명성이 있는 신양파크호텔에 위탁운영

G S T E C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Gwangju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339 | T.(062)609-0500~1 F.(062)609-0521

문의전화 예약상담 062)609-0500~1